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룬다

누구나 꿈을 꾸다. 어떤 이는 정치가를, 어떤 이는 선생님을, 어떤 이는 과학자를...

하지만 어린시절의 꿈을 이룬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한달, 일년이 지날 때마다 어린시절 크고 원대한 꿈은 한낱 일장춘몽처럼 희미하게 지워진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날의 첫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새해 첫 날의 첫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

꿈은 진정으로 바라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기에...

여기 어린시절 꿈을 이루고 오늘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를 개척한 사람들을 통해 2005년 새로운 꿈을, 희망찬 꿈을 설계해보자.

“나, 커서 세계일주 할 거예요!”

“타인 없이 행복할 수 없고, 더불어 사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강조하는 국제난민지원기구 월드비전의 간담구호팀장 한비아 씨. 그는 30대 중반까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잘나가는 국제 홍보전문가라는 직업을 내던지고 7년 동안 우리들에게는 이름도 낯선 오지 90여 개 국을 여행한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펴냈다. 그가 잘나가는 직업을 내던지고 여행전문가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는 가슴속에 품었던 ‘어린시절 꿈’을 이룬 셈이다.

국제홍보전문가에서 여행전문가로, 여행전문가에서 베스트셀러의 저자로 거듭난 한비아 팀장의 어린시절 꿈은 ‘세계일주’였으니까!

그녀는 남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웅변학원을 다니던 시절, 제 손으로 세계지도를 그리고 세계지도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세계지

도 모양의 식판에 밥을 먹으며 지구본 저금통에 세계일주에 쓸 동전을 모았다. 오직 세계일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20여년이 흐른 뒤 90여개 나라를 일주하며 지구를 한바퀴 돌았다. 그렇게 이룬 꿈은 그녀에게 ‘여행전문가’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돌아보면 국제홍보학을 전공한 것도, 7년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도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는 과정, 이 일을 잘하기 위해 운명적으로 거쳐야 했던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한비아 씨. 그는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난민촌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며 사랑이라는 더 큰 선물을 나르고 있다.

SBS 일요드라마 카이스트의 실제모델

우리나라 ‘최연소 박사’, 미국 MIT대 미디어랩 ‘한국인 최초 박사’, SK텔레콤 ‘최연소 상무’... ‘최연소’ ‘최초’라는 수식어가 이름 앞에 늘 따라다니는 SK텔레콤의 윤송이 상무.

그녀의 어린시절 꿈은 누구의 방해도 없이 과학실에서 마음껏 실험하는 것이었다. 한때는 음악도를 꿈꾸기도 했지만 과학 실험실이 없다는 이유로 예술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야산에서 곤충을 채집하며 한나절씩 헤맸던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을 졸라 비이커와 플라스크, 현미경 등 온갖 실험기구들을 갖춘 실험실을 집안에 갖춘 별난 소녀였다. 그런 별난(?) 소녀는 어느새 감성(感性)과 지능을 지닌 디지털 생명체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쌓으며 대한민국 디지털업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SBS 일요드라마 카이스트의 실제 모델이 될 만큼 별났던(?) 그녀

는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싶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을 만든다.

만화가에서 태백산맥으로 솟은 작가

“야 이놈아, 물감 살 돈도 없는데 그림은 무슨 그림이야” 지금은 고등학생들에게도 필독서가 됐고, 대학가에서는 불멸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가 어린시절 아버지에게 들던 꾸지람이다. 초등학교 시절 김성환 화백의 만화 ‘삼국지’에 심취해 만화가의 꿈을 키웠다는 작가 조정래. 그는 “아버지께 야단을 들은 후 생각해 보니 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 한 컷 짜리 만화, 네 컷짜리 만화, 한 권짜리 만화를 열심히 그렸다”며 “재능이 없어 소설가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만화가가 되고픈 꿈을 안고 산다”고 고백한다. 그의 꿈은 이뤄진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이뤄야 할 꿈은 남은 것일까? 그는 요즘도 이원복 교수의 만화 교양서 ‘만나라 이웃 나라’를 재미있게 보고, 자신의 원작이 만화로 다시 태어난 만화태백산맥을 보며 싱긋 웃는다.

“다시 태어나도 영화배우가 되겠다”

대사의 달인, ‘설정의 황제’로 불리며 뛰어난 연기력과 친화력으로 흥행을 몰고 다니는 배우 김수로는 꿈을 이룬 사람이다. 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만화와 비디오에서 만난 리샤오룽과 청룽에게 반해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꿈을 이룬 지금도 그는 60세에 최고의 배우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며 노력하는 자세를 잊지 않는다.



어떤 배역,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연기에 몰입하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김수로. 그는 “언제나 좋은 배우로 살기를 바란다”며 “다시 태어나도 영화배우가 되겠다”라고 고백한다.

세계 난민촌을 돌며 사랑을 전하는 구호팀장 한비아, 휴대폰의 또 다른 잠재력 실현을 위해 연구하는 박사 윤송이, 여전히 만화가의 꿈을 안고 사는 작가 조정래, 흥행 보증수표 영화배우 김수로...

이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서 있는 지금의 위치는 뛰어난 재능이나 주변의 환경, 훌륭한 뒷받침으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이들은 꿈이 있었고, 신념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갔기에 얻을 수 있었다.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았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며 새해를 설계한다. 계획했던 많은 꿈을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해를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꿈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므로... **n**